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 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5월 10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최형기 과장(2110-4897), 신용민 서기관(4900) 에너지절약정책과 나기용 과장(2110-4872), 김정대 서기관(4873)		

5월부터 빠듯한 전력수급 상황에 전국민 절전 동참필요

– 절전을 위해 산업계 휴가 8월말로
–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는 영업관행 근절운동 추진

5월초부터 빠듯한 전력수급 상황

□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 날씨와 발전소 공급 차질로 5월초부터 예비전력이 400~500만kW 수준을 유지

*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시에는 전압조정 등 비상조치 시행

○ 이 같은 예비전력은 전기 다소비 업체가 조업시간을 조정하여 100~200만kW의 전력수요를 감축한 이후의 결과로,

○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실제적인 예비전력은 200~300만kW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

□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예비 전력이 900만kW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500만kW 이상 급감한 수치임

(단위 : 만kW)

	'11.5.12(화)	'12.5.2(수)	증 감
공급 능력	6,901	6,341	△560
최대 수요(기온)	5,746 (20℃)	5,919 (29℃)	173
산업체 조업조정이 없었을 경우 최대 수요	5,746	6,089 (조업조정 170)	343
예비 전력	1,155	422	△733
산업체 조업조정이 없었을 경우 예비 전력	1,155	252	△903

전력 부족현상의 원인

□ **(수요측면)**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에 비해 기온이 최대 10℃까지 높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200~400만kW 증가

□ **(공급측면)**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 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공급능력은 최대 360만kW 감소

○ 고리 1호기(60만kW), 울진 4호기(100만kW), 신월성 1호기(100만kW)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정비 일정이 연장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가동이 지연되고 있으며,

○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보령 1호기(2호기 포함 100만kW)도 화재 복구후 6월말에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

□ **(전력부족의 연중 상시화)** 이상기온*으로 인해 여름, 겨울이 아닌 非피크기간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하락하지 않음

* 최근 사례 : 9·15 정전사태 당시 이상고온, 지난 동계기간에는 30년만의 2월 한파 발생, 금년 5월초의 초여름 날씨 등

○ '09년부터는 연중 피크가 동계·하계 2번 발생하여 발전소 정비 가능 기간이 봄·가을로 한정되었으나, 봄·가을에도 전력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전력부족의 상시화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

* 낮은 전기요금과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'09년부터 동계에 연중 최대피크 기록

○ 연중 지속되는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공급 증강은 불가능하므로 전기 저소비형 시스템이 구축되어 상시적인 전력 수요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

주요 수급대책의 조기시행

□ **(5~6월 대책)** 총 9대 발전소의 예방정비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(5~6월⇒9~10월)하여, 100~200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

○ 또한 민간 구역전기 사업자의 운휴 발전기를 최대 가동하여 40만 kW의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,

○ 이와 같은 공급확충 후에도 부족한 전력은 산업체의 조업시간 조정을 유도하여, 500만k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

□ **(냉방수요 억제)**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냉방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

* 냉방수요는 하계 피크전력의 21%를 점유하며, 냉방수요중 백화점, 빌딩 등 상업부문이 65%, 가정부문이 9%, 산업부문이 26%를 차지

○ 주요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(5.10~11, 에너지자원실장 주재)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계획

* (주요업종) 백화점, 마트 등 유통업체/ 커피전문점, 외식업체 등 프랜차이즈 업계/ 화장품, 휴대폰 판매점 등 소매업체/ 은행, 보험 등 금융기관

①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관행 개선
② 피크시간대(13:00~17:00) 과도한 냉방 자제
③ 영업장별 온도계 비치 및 적정 온도(26℃이상) 유지
④ 쿨맵시 복장 착용, 조명 최소화 등 기타 전기 절약

○ 자율적인 참여인 만큼, 시민감시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(절전사이트를 통해 현장점검 결과를 게재)하고,

- 언론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임

□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조치(26℃)에 대한 대상 및 시기 등은 자율참여 실적, 기온추이,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

안정적 하계 전력수급을 위한 산업계 동참 필요

□ 금년 하계전력 수급여건은 원전 가동중지에 따른 공급능력 감소, 높은 전력수요 증가* 등에 따라 지난 동절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

* 지난해 여름은 잦은 호우로 폭염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음

□ 산업체의 전력사용량은 하계 피크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만큼,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한 상황

* 부문별 피크 점유율 : 산업체 54.3%, 일반건물 27.2%, 주택 11.6%, 기타 6.9%

□ 이에 지식경제부는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전력 다소비 업체 및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는 "하계 전력수급 대비 업종별 대책회의"를 개최하고,

* 일시 및 장소 : '12.5.10(木) 10:00~11:30, 그랜드 인터콘티넨탈
* 참석 대상 : 철강/자동차/전자/정유/석유화학 등 14개 협회, 18개 기업

○ 하계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별 절전 참여방안을 논의함

□ 이날 회의에서는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 참여방안이 집중 논의됨

① 7월말~8월초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체의 휴가일정을 8월 3~4주로 분산 (지난해 8월 1주의 예비전력은 1,500만kW 이상을 유지)

* 휴가 조정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

② 피크 시간(오후 13~17시)에 산업체가 보유한 자가용 발전기 최대가동

* 발전기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보전

③ 피크 시간을 피해 산업체 조업시간을 조정

* 조업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□ 조석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“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있다면 지난 겨울과 같은 전력사용 제한없이 이번 여름의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”이라며,

○ “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솔선수범하여,

○ 피크 분산형, 전기 저소비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“고 강조함

향후 계획

□ 금번 간담회에서 산업계가 제시한 절전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무리하고,

○ 다음주 지경부 장관 주재의 “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(5.17)”를 개최하여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조속히 확정·시행할 예정이며,

○ “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”은 예년(6월말~7월초)보다 조기 시행하겠음